2026 11

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(SC-BSI)

이은형 (연구위원, eunhyung@ricon.re.kr, 02-3284-2615)

Ⅰ. 2026년 10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11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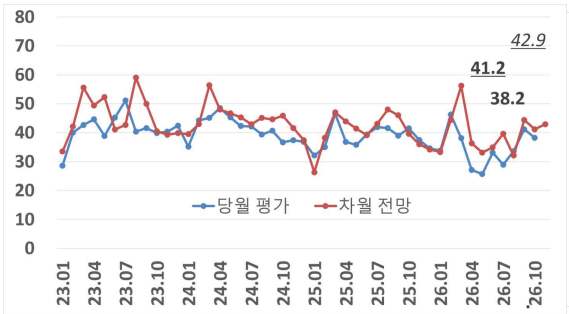
■ 10월의 경기평가는 소폭 하락, 차월은 일부 개선

- 10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8.2로 전월(41.2) 대비 소폭 하락함(-3.0p). 이는 전년 동월(41.5)보다 낮지만(-3.3p), 차월(42.9)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(+4.7p). 금월에 지적된 사안 중 공공발주의 감소, 일부 자재의 수급난, 공사비 상승에 못미치는 공사단가 등은 주로 중동사태의 여파가 반영된 것이며,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는 지속적인 사안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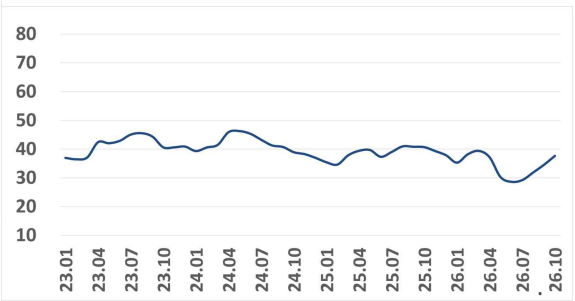
  - 수도권은 48.6(47.4→48.6)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며(+1.2p), 지방은 33.7(38.4→33.7)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(-4.7p).

〈표-1〉 2026년 10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11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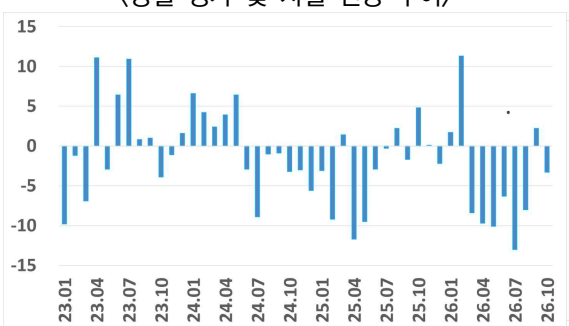
구 분	종 합		지 역			
	금월	전년 동월	수도권	지방	서울	광역시
2026년 10월 평가	38.2	*41.5*	48.6	33.7	48.6	45.9
2026년 11월 전망	42.9	*36.0*	47.1	41.1	42.9	48.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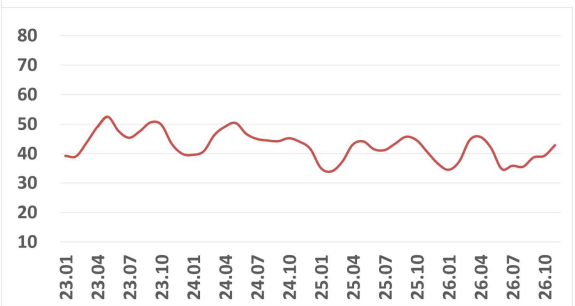
〈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〉



〈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(3개월)〉



〈전년 동월 대비 증감(당월 평가)〉



〈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(3개월)〉

Ⅱ.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

1 공사수주지수 (원도급, 하도급)

■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크게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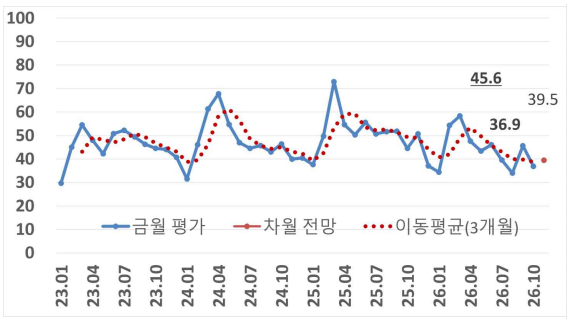
-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36.9(45.6→36.9)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으며(-8.7p), 전년 동월(44.5)보다도 낮았음(-7.6p). 하도급수주도 31.3(41.2→31.3)으로 하락했으며 (-9.9p) 전년 동월(43.3)보다 낮았음(-12.0p).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자재나 장비수급은 변동이 없어도 공공발주가 크게 감소했다며 우려를 나타냄.

  -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(68.4→41.4)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(-27.0p), 지방(35.2→35.0)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(-0.2p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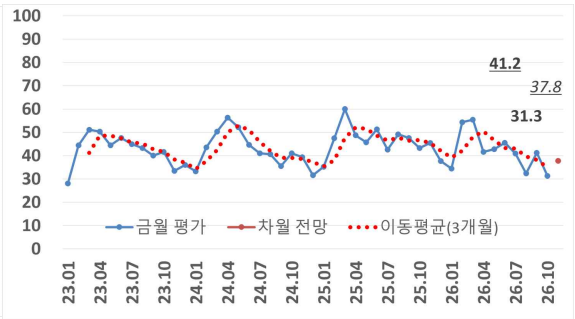
  -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(57.9→37.1)에서 크게 하락했으며(-20.8p). 지방(33.6→28.8)은 전월과 소폭의 차이만 보였음(-4.8p).

〈표-2〉 원·하도급 공사수주지수 (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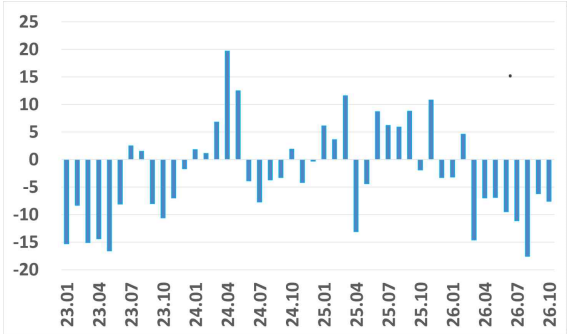
구 분		종 합		지 역			
		금월 (전월)	전년 동월	수도권	지방	서울	광역시
원도급 수주	2026년 10월 평가	36.9	*44.5*	41.4	35.0	54.3	39.2
	2026년 11월 전망	39.5	*42.1*	47.1	36.2	60.0	41.9
하도급 수주	2026년 10월 평가	31.3	*43.3*	37.1	28.8	48.6	36.5
	2026년 11월 전망	37.8	*39.0*	44.3	35.0	54.3	37.8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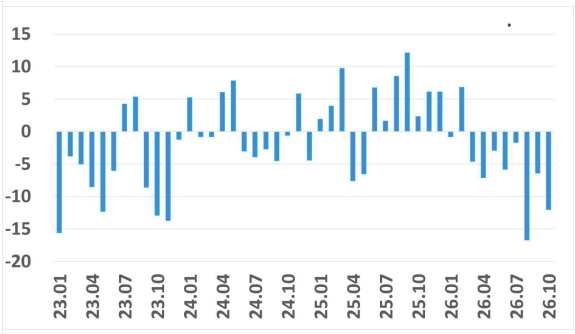
〈원도급 수주〉



〈하도급 수주〉



〈원도급 수주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

〈하도급 수주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2 자금관련지수 (공사대금수금, 자금조달)

■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모두 하락

•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5.4(60.4→55.4)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(-5.0p), 차월(51.1)도 연이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(-4.3p). 일부 업체들은 하도급공사로 참여한 공공공사에서도 기성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지적함. 민간공사도 상황은 유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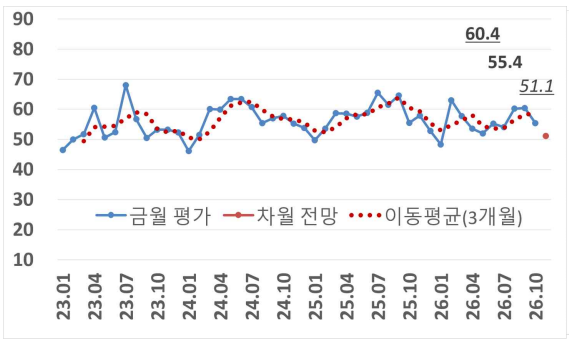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(71.9→60.0)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지만(-11.9p), 지방(55.2→53.4)은 전월과 소폭의 차이만 보였음(-1.8p).

•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1.1(58.2→51.1)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(-7.1p), 전년 동월(54.3)에도 미치지 못했음(-3.2p), 차월(51.1)에도 별다른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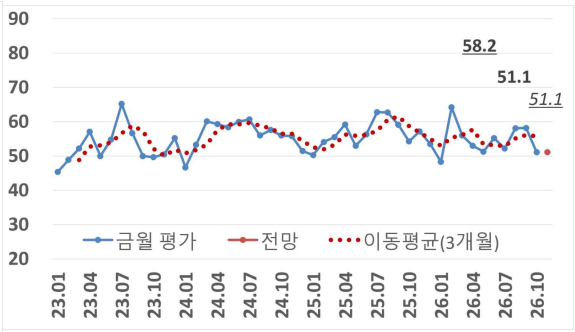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(66.7→55.7)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(-11.0p), 지방(54.4→49.1)도 하락함(-5.3p).

〈표-3〉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(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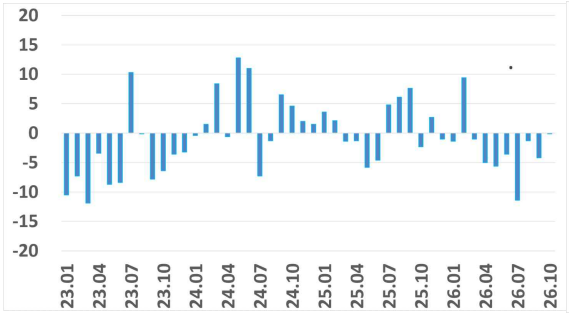
구 분		종 합		지 역			
		금월	전년 동월	수도권	지방	서울	광역시
공사대금수금	2026년 10월 평가	55.4	*55.5*	60.0	53.4	65.7	55.4
	2026년 11월 전망	51.1	*52.4*	58.6	47.9	60.0	50.0
자금조달	2026년 10월 평가	51.1	*54.3*	55.7	49.1	57.1	52.7
	2026년 11월 전망	51.1	*47.0*	58.6	47.9	60.0	52.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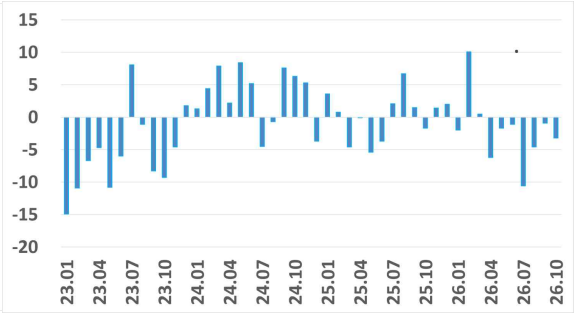
〈공사대금수금〉



〈자금조달〉



〈공사대금수금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

〈자금조달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(인건비, 인력수급)

■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모두 전월과 유사

- 인건비체감[1] 경기실사지수는 65.2(67.0→65.2)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(-1.8p) 이는 전년 동월(63.4)과 비교해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(+1.8p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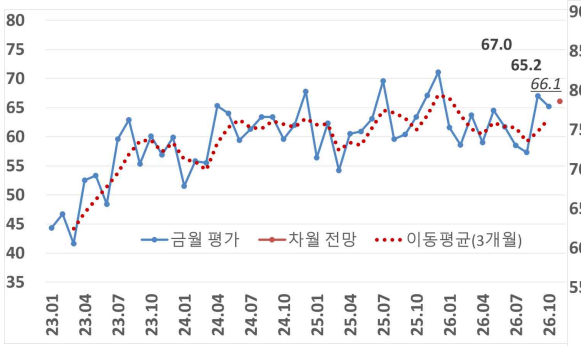
  - 수도권(64.9→74.3)은 전월에 이어 상승(+9.4p), 지방(68.0→61.3)은 하락함(-6.7p).

-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0.0(71.4→70.0)으로 전월과 비슷했지만(-1.4p), 전년 동월(78.0)과는 차이를 보였음(-8.0p). 일부 업체는 건설경기의 둔화로 기능인력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기술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의 수급이 어렵다고 지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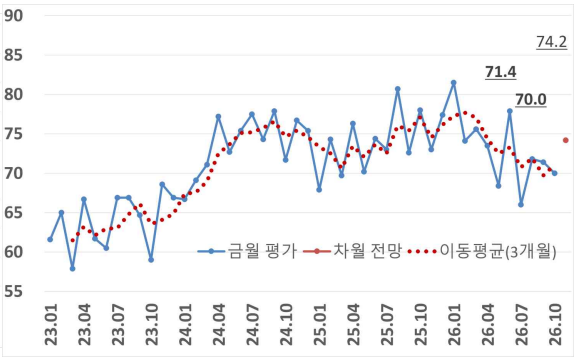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(70.2→75.7)은 전월보다 상승(+5.5p), 지방(72.0→67.5)은 하락함(-4.5p).

〈표-4〉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(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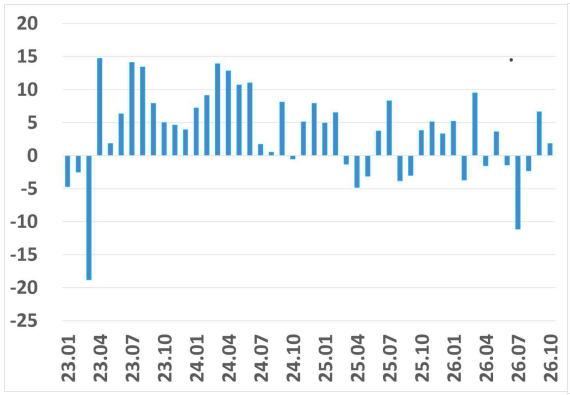
구 분		종 합		지 역			
		금월	전년 동월	수도권	지방	서울	광역시
인건비 체감	2026년 10월 평가	**65.2**	*63.4*	74.3	61.3	68.6	73.0
	2026년 11월 전망	**66.1**	*64.6*	67.1	65.6	54.3	74.3
인력수급	2026년 10월 평가	**70.0**	*78.0*	75.7	67.5	68.6	73.0
	2026년 11월 전망	**74.2**	*73.8*	81.4	71.2	74.3	78.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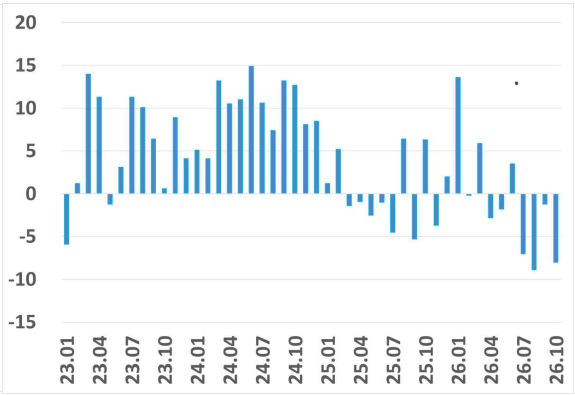
〈인건비 체감〉



〈인력수급〉



〈인건비 체감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

〈인력수급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1)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(개선 또는 악화)를 의미함

4 건설자재 관련 지수 (자재비, 자재수급[2])

■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모두 하락

- 자재비[3] 경기실사지수는 43.3(50.0→43.3)으로 하락함(-6.7p). 반면 차월(52.4)은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(+9.1p), 이는 중동사태 등의 외부요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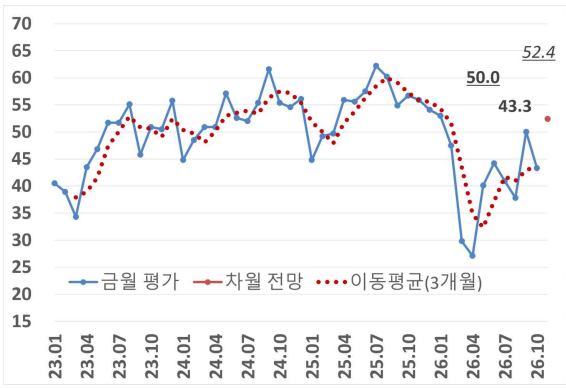
  - 수도권(45.6→45.7)은 전월 수준(+0.1p), 지방(52.0→42.3)도 동일함(-9.7p).

-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6.4(85.2→76.4)로 하락했으며(-8.8p), 차월(76.8)에도 금월의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(+0.4p). 자재수급 우려는 아스콘 등의 일부 자재에 한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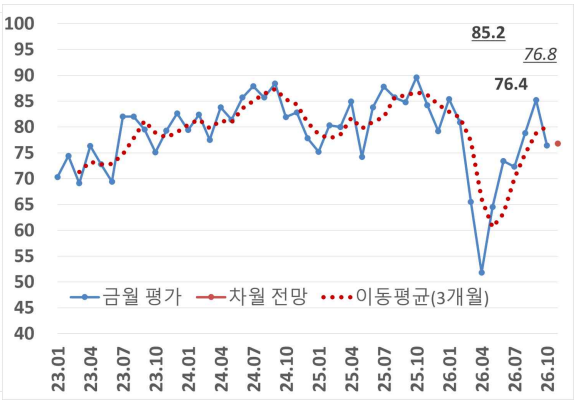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(86.0→74.3)은 크게 하락(-11.7p), 지방(84.8→77.3)은 하락함(-7.5p).

〈표-5〉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(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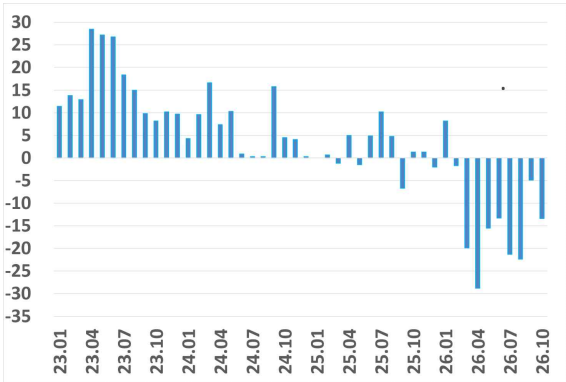
구 분		종 합		지 역			
		금월	전년 동월	수도권	지방	서울	광역시
자재비 체감	2026년 10월 평가	**43.3**	*56.7*	45.7	42.3	34.3	54.1
	2026년 11월 전망	**52.4**	*57.9*	50.0	53.4	40.0	60.8
자재수급	2026년 10월 평가	**76.4**	*89.6*	74.3	77.3	62.9	81.1
	2026년 11월 전망	**76.8**	*81.1*	81.4	74.8	74.3	78.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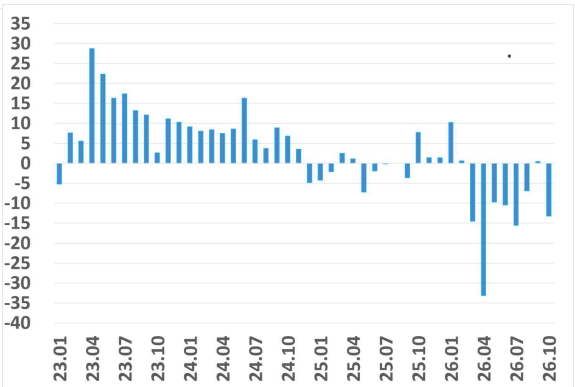
〈자재비 체감〉



〈자재수급〉



〈자재비 체감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

〈자재수급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2)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(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).
3)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(개선 또는 악화)를 의미함

5 건설장비 수급지수 (장비임대료, 장비수급)

■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도 하락

-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8.8(62.1→58.8)로 전월보다 하락했지만(-3.3p), 차월(64.4)에는 일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(+5.6p). 이번 조사에서도 장비임대료보다는 공사수주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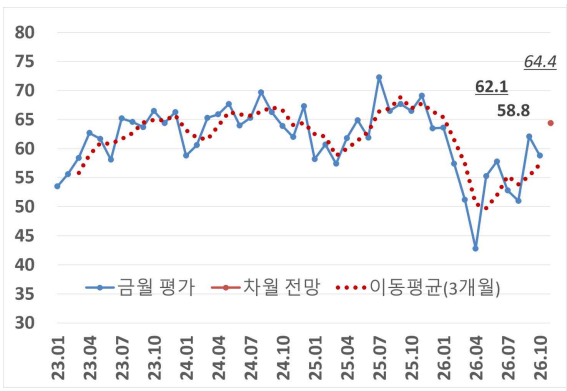
  - 수도권(61.4→61.4)은 전월의 수준(+0.0p), 지방(62.4→57.7)은 하락함(-4.7p).

-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7.6(95.1→87.6)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(-7.5p), 차월(83.3)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(-4.3p). 이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사안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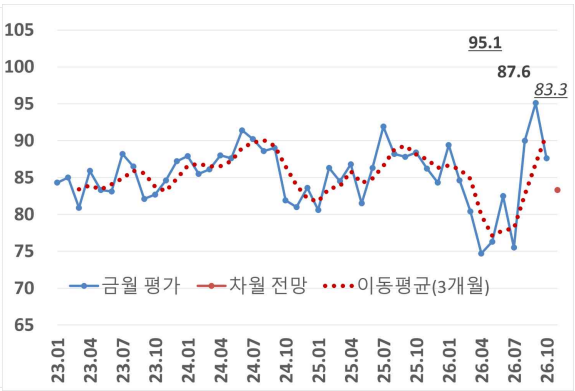
  - 수도권(91.2→84.3)은 하락(-6.9p), 지방(96.8→89.0)도 하락함(-7.8p).

〈표-5〉 건설장비수급 지수 (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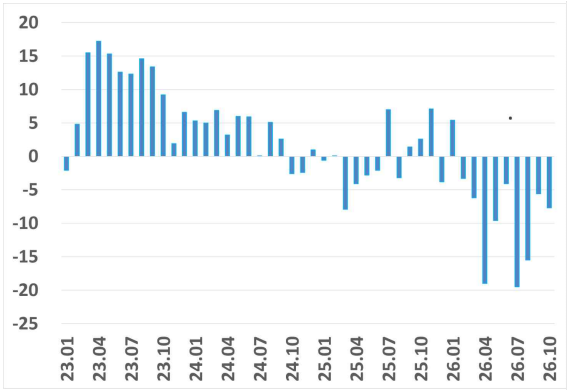
구 분		종 합		지 역			
		금월	전년 동월	수도권	지방	서울	광역시
장비임대료 체감	2026년 10월 평가	58.8	*66.5*	61.4	57.7	51.4	59.5
	2026년 11월 전망	64.4	*68.3*	64.3	64.4	51.4	68.9
장비수급	2026년 10월 평가	87.6	*88.4*	84.3	89.0	71.4	89.2
	2026년 11월 전망	83.3	*82.9*	84.3	82.8	74.3	83.8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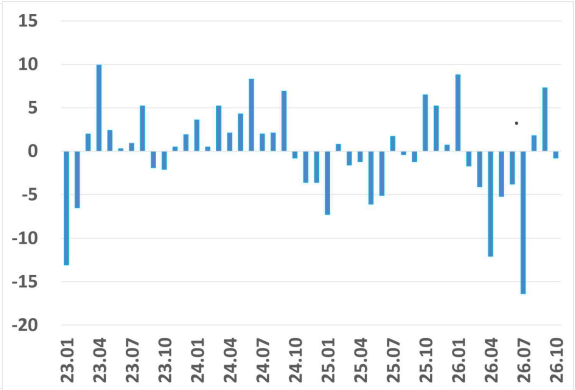
〈장비임대료 체감〉



〈장비수급〉



〈장비임대료 체감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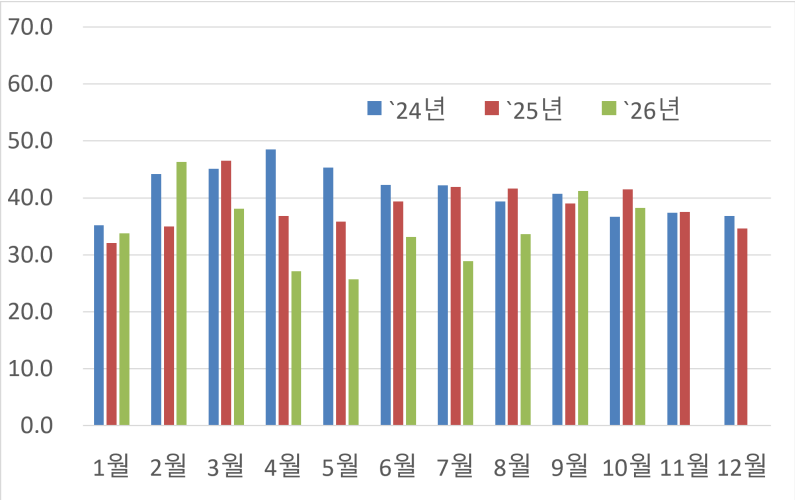
〈장비수급 증감(전년 동월비)〉

참고: 2026년 10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

구 분			종 합		지 역			
			금월	전년 동월	수도권	지방	서울	광역시
전문건설업 경기		금월 평가	38.2	*41.5*	48.6	33.7	48.6	45.9
		차월 전망	42.9	*36.0*	47.1	41.1	42.9	48.6
공사물량	원도급 수주	금월 평가	36.9	*44.5*	41.4	35.0	54.3	39.2
		차월 전망	39.5	*42.1*	47.1	36.2	60.0	41.9
	하도급 수주	금월 평가	31.3	*43.3*	37.1	28.8	48.6	36.5
		차월 전망	37.8	*39.0*	44.3	35.0	54.3	37.8
자금사정	공사대금 수금	금월 평가	55.4	*55.5*	60.0	53.4	65.7	55.4
		차월 전망	51.1	*52.4*	58.6	47.9	60.0	50.0
	자금조달	금월 평가	51.1	*54.3*	55.7	49.1	57.1	52.7
		차월 전망	51.1	*47.0*	58.6	47.9	60.0	52.7
건설 기능인력	인건비 체감	금월 평가	65.2	*63.4*	74.3	61.3	68.6	73.0
		차월 전망	66.1	*64.6*	67.1	65.6	54.3	74.3
	인력수급	금월 평가	70.0	*78.0*	75.7	67.5	68.6	73.0
		차월 전망	74.2	*73.8*	81.4	71.2	74.3	78.4
건설자재	자재비 체감	금월 평가	43.3	*56.7*	45.7	42.3	34.3	54.1
		차월 전망	52.4	*57.9*	50.0	53.4	40.0	60.8
	자재수급	금월 평가	76.4	*89.6*	74.3	77.3	62.9	81.1
		차월 전망	76.8	*81.1*	81.4	74.8	74.3	78.4
건설장비	장비임대료 체감	금월 평가	58.8	*66.5*	61.4	57.7	51.4	59.5
		차월 전망	64.4	*68.3*	64.3	64.4	51.4	68.9
	장비수급	금월 평가	87.6	*88.4*	84.3	89.0	71.4	89.2
		차월 전망	83.3	*82.9*	84.3	82.8	74.3	83.8

주1: '전체'지수는 '수도권'과 '지방'을 합산해서 산출.

주2: '광역시'는 6대 광역시(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).



〈최근 3년간의 SC-BSI 비교〉